

김흥빈 대장 광주일보 社旗 들고 안나푸르나 정상에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흥빈(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 대장이 지난 13일 네 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 정상에서 세르파와 함께 광주일보 사기(社旗)를 펼쳐 들고 있다. 김 대장은 이번 등정으로 8000m급 14좌 가운데 12개째 등정에 성공해 완등까지 2개 봉만 남겨놓고 있다. 김 대장이 지난 15일 베이스캠프로 하산 후 전송한 사진이다. 두 사람 사이로 네팔인의 성산인 마차푸차레(6997m) 정상이 보인다. <김흥빈 대장 제공>

박철홍 회장, 광주건축대전 후원금 5000만원 전달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은 최근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광주건축대전’ 후원금으로 5000만원을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회장 박흥근)에 전달했다. <광주전남건축가회 제공>

새마을금고 여수서 ‘광주전남 경영평가대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지난 16일 여수시 소호동 디오션호텔 웨딩홀 별관 빌라스타홀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비롯해 98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군구실무책임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허순선 광주대 교수 무형문화재위원 위촉

광주대학교 허순선(사진) 스포츠레저학과 교수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0년 4월 30일까지다. 무형문화재위원에는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및 관습 등 3개 분야의 전문가 24명이 위촉됐으며 허 교수는 전통예능 분야에서 활동한다. 위원들은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와 보유자·보유단체의 지정 및 해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허순선 교수는 주요 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와 제92호 태평무의 이수자로 전남도문화재위원, 광주시문화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불운한 환경속에서도 아내 있기에 희망 잃지 않았죠”

대륜상 수상 정반표 전 광주시립도서관장

교통사고로 다리 잃고 부인은 시력 상실
23년간 아내 보살피며 복지시설 후원
2001년 장애극복상 상금 성금 기탁도

“장애를 겪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귀촌 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나무를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반표(66) 전 광주시립도서관장이 광주여학사회가 주는 ‘제32회 대륜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6일 오후 프라도호텔 2층 연회장에서 상을 받았다. 1977년 제정된 ‘대륜상’은 아내를 도와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사회적 귀감이 된 남성이나 아내의 사회활동을 뒷바라지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한 남성에게 주고 있다. 즉 부부 사랑의 귀감이자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이에게 수상하는 상이다.

정 전 관장은 자신이 장애가 있으면서도 불운의 의지로 극복하고 아내를 23년간 보살피며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등 ‘헌신’의 삶을 살아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

정 전 관장과 부인 허윤희씨는 지난 1995년 12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허씨는 뇌 손상으로 양쪽 눈 시신경이 마비돼 시각장애(1급)

제32회 대륜상 시상식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스케치하다』
주제 강연: 그림책 속에서 다시 본 여성
일시: 2018. 5. 16(수) 오후 2시 (사)한국여학사회 광주지부



대륜상 수상 직후 기념촬영을 한 정반표(왼쪽) 전 광주시립도서관장과 광주여학사회 김경란 회장.

관정을 받는 것은 물론 기억상실증까지 앓게 됐다. 정상적인 생활은커녕 혼자 힘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정 전 관장 역시 왼쪽 다리 대퇴부를 절단하고 오른쪽 팔에 철심을 박는 등 대수술을 하고 장애를 갖게 됐지만,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로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그는 복귀 오지동 자택에서부터 허씨가 입원한 기독교병원까지 매일 목발을 짚고 오가며 간병을 하기 시작했다.

인공관절로 교체한 왼쪽 다리가 여전히 불편했지만, 잠을 줄이면서 고등학교 1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이던 두 자녀의 뒷바라지와 가정살림 돌보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정 전 관장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잃지 않았다. 정 전 관장은 광주시에 재직하는 동안 ‘기쁜 우리 복지관’과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 매년 성금을 후원하고, 가톨릭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사랑의 시문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01년에는 ‘올해의 장애극복상’(대통령상) 수상으로 받은 50만 원을 결식학생들 기성금으로 기탁했다.

그는 지난 1979년부터 2011년까지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립, 광주시 100억 달러 수출시대 토대 마련,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청사 건립, 광주시 제4차 환경보전계획 수립,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마련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6월 명예퇴직 후 곡성군 석곡면에 귀촌한 정 전 관장은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며 “고향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0대 노부부가 용돈 모아 손녀 다니는 대학에 기부

김채석씨 부부, 동신대에 기탁

80대 노부부가 손녀에게 주기 위해 한푼두푼 모은 용돈(?)을 손녀가 다니는 대학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나주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군사학과 3학년 김찬미(여·21)씨 할아버지인 김채석(83)씨 부부가 총장실을 찾았다. <사진>

할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를 꺼내 김필식 총장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그가 지난 2년여 동안 곡성 시골집에서 매실과 고추, 감을 내다 팔아 모은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뇌경색을 앓아 수차례 뇌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200리 길을 마다치 않고 대학을 찾은 것은 손녀 때문이었다. 기나긴 투병생활 동안 손녀가 응원 편지를 써서 읽어준 시간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김씨 어머니 박성임(53)씨는 “잔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많이 따라 유독 더 예뻐하셨다”며 “손녀를 위해 모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소심한 손녀를 자신감 넘치는 어른으로 키워준 대학에 기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손녀 손을 꼭 잡은 채 김 총장에게 “우리 손녀를 잘 키워주시길 감사하다”며 돈을 좋은 일에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씨 부모도 노부부 뜻을 따라 학교에 발전기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김필식 총장은 “그 어떤 발전기금보다 크고 값진 것 같다”며 “김찬미 학생처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김민서 등 6명 요리경연대회 금상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식품영양학과 김민서 학생 등 6명은 최근 ‘2018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들은 전통음식부문에 남복한 음식문화 교류와 한국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인 대통령 문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장상과 발효음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국무총리상(2회), 국회의장상(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4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총 20여개의 상을 휩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내림김치를 재현한 김민서 장김치, 나수미 나



복채와 솔지개미절임김치, 발효음식으로 문여원 꽃마늘장아찌, 장호주 달래장아찌, 김영희 보리굴비와 연잎효소고추장, 김진태 곶감꽃고추열무김치를 출품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적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 별세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사진) 씨가 17일 새벽 0시 40분께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 딸인 이정우 디자이너는 이날 “한 달 전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노환 등으로 병세가 악화했다”면서 “병세가 좋아졌다고 퇴원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고 밝혔다.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찍부터 전업주부로 살다가 1976년 마흔에 뒤늦게 한복 디자이너 길로 들어섰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레디스타운 내에 ‘이영희 한국여성상’이라는 이름으로 연 한복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식으로 의상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던 고인은 낮에는 한복을 짓고, 밤에는 스케치를 연습했다.

전통복식학자이자 민속학자인 석주선(1911~1996)과의 만남을 계기로 전통한복 연구에 매달렸다. 1993년 한국 디자이너 최초로 파리 프레타포르테 쇼에 참가해 주목받았다. 이후 2000년 뉴욕 카네기홀 패션 공연, 2004년 뉴욕 이영희 한복 박물관 개관, 2007년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한복 전시, 2008년 구글 캠페인 ‘세계 60 아티스트’ 선정 등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 ▲김보근(디케이주식회사 대표이사)·차상례씨 장남 재훈(디케이주식회사 과장)군 박금호(전 완도농촌기술센터 소장)·김영례씨 차녀수정(한국콘텐츠진흥원 대리)양=19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드림웨딩홀 2층 CN홀.
- ▲고광수·김정태씨 장남 현준군 백정환(전 광주일보 디자인실장)·김용배씨 차녀 서진양=19일(토) 낮 12시20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2층 컨벤션홀.
- ▲배경석(경주배씨 광주종친회장)·김복희씨 장남 시절군 구순남씨 장녀 나희양=26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마루동 데일리 웨딩 컨벤션(2층) 오도도스홀.

종친회

▲경주배씨 달성판서공파 전국 종친회 배인(派祖파조)장군 총양대제=20일(일) 송덕묘(崇德廟) 대구시 북구 구암로 21길 41(읍내동) 구천서당내 사무국장 배효열 010-7592-4689.

동창회

▲재경 장흥 용산중학교 제 10회=26일(토) 오후 6시 삼육가(사당역 13번 출구) 문의 010-2363-0124.

알림

-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

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

- 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찍 기탁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빙시 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 ▲푸른길통통문화마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 ▲설천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부음

▲이승한씨 별세 이정윤(여수씨에서 나 무병원)·지혜(NH투자증권)·지은씨 부친 상 박누리(건강보험공단)씨 시부상 정요철(농협은행)씨 빙모상=19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삼가 故人の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김귀남 님(여/92세) 子/子婦 : 조연호, 광호/하남희, 민호/박경민, 정현/박금자 女/婿 : 조산수, 김희, 정희/김병우 孫 : 조충남, 주원, 승원, 동원, 해원 *발 인: 5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301호 故김정자 님(남/62세) 子/子婦 : 박대훈/오신실, 박대인 女/婿 : 박미진/주재일 孫 : 박오영 *발 인: 5월 19일 *장 지: 영락공원
401호 故정금자 님(여/74세) 子/子婦 : 최연석/문영숙 孫 : 최연경 夫/妻 : 최동식 *발 인: 5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1 *연락처 : 227-4382 *연락처 : 227-4383	
함께한 10년, 함께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재길 www.mykumho.com	